

[개회사]

공존 가치 담은 ‘평화의 실크로드’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해 헌신해온 귀한 손님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님,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님,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님,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님,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님, 그리고 제주포럼을 빛내주시는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1년 첫발을 뗀 제주포럼은 이제 아시아의 미래를 개척하는 공공 외교포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주포럼의 논의 주제는 세계 유일의 분단 현실 극복을 위한 한반도 평화,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를 기점으로 경제, 문화, 관광, 여성, 환경, 에너지 등으로 그 지평을 확장하여왔습니다.

여기에는 불행한 역사의 유산을 극복하고 21세기 평화의 관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인들의 노력은 물론, 제주에서 평화와 번영의 담론을 이끌어온 글로벌 리더와 석학,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가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제주포럼 대주제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입니다. 아시아는 매우 다양한 나라와 민족, 문화, 종교, 역사,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위기와 잠재적 갈등 요소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실업률과 빈부격차, 초국가적 테러 위협 등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입니다. 지속가능한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전 지구 수준의 위기 극복에 더욱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협력은 ‘공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등 모든 주체들이 동등하게 존재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공존



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존이라는 질서와 가치가 공유될 때 여러 차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공존의 질서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우리 제주도는 ‘새로운 평화’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가 추구하는 새로운 평화는 제주의 대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치유의 평화’, 이해관계를 넘어 다름을 모두 포용하는 ‘관용의 평화’, 에너지 생산과 소비 전 과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에너지 평화’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화’는 실천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평화를 확산시키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 평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제주는 평화 산업의 첫발을 뗐습니다. ‘깨끗한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자동차’로 설명할 수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가 제주형 평화 산업입니다. 이는 ‘제로섬(zero-sum)’이 아니라 ‘논 제로섬(non zero-sum)’의 평화입니다. 모두가 ‘평화 이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화가 이웃의 평화를 지탱해주고, 이웃의 평화가 나의 평화를 담보해주게 됩니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서 이러한 ‘논 제로섬 평화’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평화의 섬 제주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물론 시행착오까지 아시아 나라들과 함께 공유해나가면서, 아시아의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는, 공존과 협력의 미래로 가는 ‘평화의 실크로드’를 만들고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해상과 육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도 공존, 협력이 가능한 제주의 평화 실크로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평화 산업을 실어 나르는 제주의 평화 실크로드는 제주에서 출발해 아시아 모든 국가로 평화가 녹아드는 실핏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포럼은 평화 담론의 지적 용광로로서, 평화 실천의 인큐베이터로서, 평화 자본을 만들어가는 평화 기업가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협력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머무시는 동안 제주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매력에 흠뻑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조연설]

새로운 아시아의 시대를 향하여

황교안 대한민국 국무총리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리는 제11회 제주포럼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님,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님,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님,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님,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과 문태영 제주평화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주포럼의 주제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입니다. 아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비중과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 간 협력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들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에는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60%,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등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도 매우 활발합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증대로 아시아의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소득불균형, 그리고 역내 국가 간 인프라 격차 등과 같은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영토·해양 이슈를 둘러싼 역내 갈등도 여전하고, 전략적 이익의 충돌, 지역안보 구도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경쟁과 견제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테러·난민·전염병 등 초국경적인 위협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역내의 지정학적 지형 변화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경쟁과 협력을 미래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이 국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호혜적으로 공존해나가려는 상생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올해 제주포럼의 주제인 '협력적 리더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신뢰외교(Trustpolitik)'를 통해 국제사회에 협력적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협력은 항상 상호 신뢰의 수준과 같이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뢰외교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협력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의 외교 지평을 전 세계로 넓혀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의를 거부하는 북한의 행태와 셈법을 바꾸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 진정한 신뢰 프로세스를 열어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안보동맹을 넘어 우주 협력 등 뉴프런티어를 개척하며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며, 대북 압박외교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양국 간 가장 어렵고 힘든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로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자(兩者)뿐 아니라 3자(者), 소다자(小多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역내 협력을 이끌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복원시킨 데 이어 올해는 북극, 교육, 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역내 연성 이슈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여와 리더십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보답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교육, 보건, 농촌개발, 그리고 평화유지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방문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며칠 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 외교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의장국이자, 녹색기후기금(GCF)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이 어김없이 움직여야 정확한 시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시계의 각 부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시계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아시아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제주포럼의 개막을 축하하며, 이번 포럼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화합과 협력과 번영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조연설]

세계 진보, 포용과 협력에 달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따뜻한 환영에 감사 드립니다. 제주포럼에 초청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포럼에 다시 참석하게 돼 기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정부 고위인사, 재계와 학계 인사, 활동가, 특히 젊은이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주포럼을 주관하는 제주평화연구원이 창립될 때 나는 대한민국 외교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설립 취지는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 건설적인 참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을 떠날 때 나는 한국민들에게 한국을 세계로, 세계를 한국으로 연결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늘 한국, 넓게는 아시아의 유산에 자랑스럽게 의존해왔습니다. 아시아 지도자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에 감사 드립니다. 아시아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아라는 강력한 대륙은 세계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자리에서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행동, 지역 협력, 한반도 안정,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이 그것입니다.

서로 연관된 이들 이슈를 잘 다뤄나가는 것은 아시아인은 물론 세계인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중 평화와 인간과 지구를 위한 글로벌 행동이 우선입니다.

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오는 길입니다. 거기서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와 유익한 양자회담도 했습니다. 정상회의는 위기 상황 대응을 개선하는 데 참여할 것을 확고히 다짐하였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보장을 개선하고 인도주의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타협'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정부 실패부터 인권 유린까지 많은 요인들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3분의 1이 아시아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은 문제 해결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풍력, 태양광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후변화 현상을 해결하는 리더인 셈입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도 태양광발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곳곳의 기업들이 혁신적인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협약이 발효되려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5%에 해당하는 55개국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177개국이 파리협약에 서명했고 현재 1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 각국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파리협약 비준을 서둘러주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강력한 경제성장은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2015년까지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빈곤층의 3분의 2인 4억5000만 명이 여전히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물과 용지 부족, 환경오염 등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2030년 어젠다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의 진보는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유엔은 아시아의 국제사회 기여를 고맙게 여깁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한 나라 상위 5위 중 4개국은 아시아 국가입니다. 이들의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계속 경제적 활력과 영향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진보와 민주화 진전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많은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민주 체제로 평화적인 이행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얀마 총선은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다인종, 다종교 민주 체제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미얀마의 새 지도부는 이제 전면적인 인권존중과 함께 차별 극복, 평등 보장, 포용적 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엔은 앞으로 계속 아시아의 민주적 개혁을 지지할 것입니다.

글로벌 행동은 오늘 내가 제시하는 둘째 주제인 지역 협력과 밀접히 관련됩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같은 지역 협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고위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한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중일 3국 간 7차 정상회의는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열려야 합니다.

유엔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긴밀히 손잡고 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시아 전역에 평화와 번영을 확산시키는 일에 유엔은 여러분들의 파트너입니다. 진보는 도전에 맞섬으로써 이뤄집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같은 영토, 영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관련국들이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관련국들은 유엔헌장을 포함해 보편적으로 공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나는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 선언' 원칙 아래 행동수칙에 관한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해왔습니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사이버 테러, 기타 안보 위협이 아시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하나의 지역으로 이에 대응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시아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아시아 대륙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아시아는 오래된 불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영토 분쟁도 이제 합의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역사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불행했던 과거사 문제들을 정확하고 겸허하게 다뤄야 미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다른 대륙에서 봐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유럽은 관련 합의와 기구 조성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역동적인 아시아 대륙에는 급속히 성장 중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깊은 대화와 참여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협력을 넓히고, 파트너십을 키우고, 협업을 굳건히 하기 바랍니다. 폭력적인 충돌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패배한 세대와 더 심한 빈곤, 깊은 비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국심이지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한국인이지만, 글로벌 시민이기도 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오늘날 지리적 국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는 글로벌 안목을 갖춘 글로벌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그런 정신이 진보를 이끕니다.

글로벌 행동과 지역 협력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이곳 한반도의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최근 우려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결연히 대응하였습니다.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나는 결의안 이행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사회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세계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자국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과다한 군비 지출이 계속되는 동안 어린이들은 학대받고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잘못된 일들을 시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화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합니다. 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어떤 방식이든 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지속적 평화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주제인 인권과 관련해 아시아에서도 진보가 이뤄져왔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지역 단위에서 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서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제 지역 협력이 인권 문제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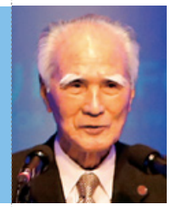
진보가 이뤄지긴 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한 아세안 정부 간 위원회 설립과 아세안 인권선언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아시아가 인권 유린에 맞서 종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시민사회에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여전히 민주적 공간이 축소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비관용과 혐오 발언, 폭력사태가 늘어나는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종교적 소수자, 이민자, 난민,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포용력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파키스탄은 수십 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해온 나라입니다.

전 세계 이주민 집단거주지역에 많은 아시아인들이 살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대부분 힘든 직종에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기업, 연예계,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해외 아시아인들은 타인을 포용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증명합니다. 이민자와 난민이 아시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이주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요망합니다.

나는 아시아적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마추어 서예가로서 나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문구를 자주 연습하곤 합니다. 그 뜻은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이 행동한다"입니다. 물은 지혜와 유연성, 소프트파워를 상징합니다. 아시아는 이런 귀중한 특성을 널리 확산시킬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세계 전 인류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합니다.



[기조연설]

화해의 첫걸음은 진정한 사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평화롭게 서로 협력하며 지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과거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을 통해 전쟁 국가에서 평화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만, 그에 걸맞은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전후 50년이 되던 해에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저는 '무라야마 담화'로 알려진 총리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책을 잘못 펼쳐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라는 역사인식을 표명하였습니다.

일본이 대만을 청나라에서 빼앗은 것은 1894~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이며, 한국을 점령하고 강제적으로 병합한 것은 1904~1905년 러일전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무라야마 담화의 반성은 청일·러일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 50년간 일본의 전쟁 시대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제가 총리를 사임한 후 일본의 국시(國是)로서 자유민주당의 역대 총리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민주당의 간 나오토 총리가 한국 병합 100년 총리 담화를 발표하여 식민지 지배 반성을 한층 더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말 총리가 된 아베 신조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토 목표를 표방하며 등장하여 국내외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저도 매우 우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베 총리도 무라야마 담화 계승을 표명하기에 이르러, 작년 8월에 전후 70년 아베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베 담화는 제 담화보다 훨씬 길며 복잡합니다. 아베 담화는 "세계 대공황 이후 세계의 대세를 따라잡지 못한 일본은 만주 사변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어 갔다. 진로를 잘못 잡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주사변 이후 15년 전쟁에 대한 반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담화는 러일전쟁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웠다"고 평가하고, 청일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여 청일·러일 전쟁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 것이므로, 대만,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베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를 절반 정도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한반도 사람들에 대한 배려 부족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계속해서 일본의 국시(國是)로서 그 생명력을 이어나갈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은 원칙적인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속죄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지난 25년간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져 해결이 촉구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2012년 총재선거 때 '강제성이 있다고 하는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고노 담화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출마했습니다. 때문에 아베 총리의 의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한일관계가 붕괴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대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고 10억 엔을 한국정부에 기탁하는 것으로 하여, 지난해 12월 말 한일 외무장관 합의 발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합의가 확실히 실행되어 한국의 피해자와 운동단체에 받아들여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의 화해를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월 28일 외무장관 회담 합의 발표로 표현된 아베 총리의 사죄 의지를 편지로 작성하여, 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의 총리 시절 내각에서 마련했으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피해자 대부분이 거부한 아시아여성기금에서도 하시모토, 오부치, 모리, 고이즈미 총리가 자필로 서명한 '사과의 편지'를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리의 사죄 의지를 표현한 편지를 주한대사를 통해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으로 상당수 병상에 계신 피해자 분들께 가슴을 울리는 사죄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전에 기시다 외무대신을 방문하여 이러한 취지를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논의와 양국 정부 협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 도우며 살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50년 전쟁이 심각한 상흔을 남긴 이 지역에서는 그 후에도 약 30년간 중국 내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40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인공위성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입장은 자꾸 악화되고 있으며 제재는 더욱 강해지고 있으나 사태는 계속 악화되고 북한의 핵병기는 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판단 착오를 범할 경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미사일이 일본에도 날아오게 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일본도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 북한, 일본이 치명적인 파국을 맞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충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에게 북한은 국교가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식민지 지배 청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는 무관하게, 일본은 이웃나라와 대립한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혜를 내고 북한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국교를 맺고 선린 관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일 간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어 배의 왕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북한이 관계를 열게 된다면 남북의 진정한 교섭에도 좋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또 하나의 문제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진정된 상태입니다만, 중국과 일본은 이 섬 주위에서 대단한 긴장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에는 도서 방위 방침이 주어져 유사시 미군의 협조 약속을 얻어내고자 아베 정부는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 섬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가 각각 할 말이 있는 만큼 영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본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평화 국가가 되었을 때 일본이 행한 것은 일중부전(日中不戰)의 서약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무력 충돌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센카쿠 열도를 일중이 공동 개발하여 평화의 섬으로 만든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중심으로 평소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방침과 생각은 일본국 헌법이 가리키는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후 70년간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길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발언을 둘러싸고 심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은 용이한 길,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각국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베이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천안문 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이 저에게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패권을 원하지는 않는다. 할 수 있다면 일본과 협력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매우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포럼에 참가하신 여러분과 힘을 합쳐 평화를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조연설]

전쟁을 범죄로 여기는 것이 곧 문명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이 포럼에 연사로 초대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제주포럼은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전쟁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해결을 명목으로 서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살인을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살인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전쟁을 범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몇 백만 명을 죽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7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여기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범죄라면, 그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더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레이시아에서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자는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전쟁이 갈등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을 보노라면, 우리는 범죄에 대한 진보적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레이시아에서 전쟁을 범죄로 간주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엉뚱한 짓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범죄로 여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지난 7000년간 전쟁을 해왔고 오늘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 모든 공동체가 노예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노예제는 범죄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다른 형태로 노예제가 존속할 수도 있지만, 노예제는 이제 범죄입니다. 세계가 노예제를 범죄로 인식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노예제보다도 나쁘기 때문에 전쟁도 범죄라는 사실은 세계가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은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전쟁의 결과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황폐화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국가 간 분쟁이 생기면



해법은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인륜적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살인을 피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범죄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분명히 더 큰 범죄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제3국을 통한 해결책인 조정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재판소에 갈 수도 있고 이들 세 가지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구성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 개념은 무역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세안은 유럽연합과 다릅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이웃 국가들과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런 일입니다. 이웃 국가 간 상충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어느 지역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세안을 결성한 이유로, 이제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은 서로에 대해 알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중간 해역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랜 기간 협상을 벌여 이 해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무엇이든 50 대 50으로 동등하게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해역을 공동 개발하여 이미 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양국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사바 주 북보르네오 연안 두 개 섬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랜 협상 끝에 양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재판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이 분쟁에 대해 국제재판소는 이 두 개의 섬이 말레이시아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양국이 국제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의 조그만 바위섬을 두고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협상 끝에도 합의를 보지 못해 국제재판소로 갔습니다. 국제재판소는 이 바위섬이 싱가포르에 속한다고 결정했고 우리는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과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양국 관계의 주요 이슈로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필리핀과 외교관계가 없었지만 나중에 복원되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은 살인을 하기 때문에 매우 미개한 행위입니다. 우리 자신이 문명화된 존재라 생각한다면 어떠한 분쟁이든 그 해법으로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유엔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5개 상임이사국에 의해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원국 다수의 결정에 의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가 간 갈등은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전쟁이란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 해결 방법으로 전쟁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엄청난 돈이 무기의 성능 개발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군집 상태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기가 사용된다면 많은 이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군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민간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살인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보다 더 큰 범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고방식이 바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노예제를 범죄로 보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노예를 소유하지 않게 되기까지는 거의 200년이 걸렸습니다. 전쟁을 범죄시하기 위한 노력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마일의 여행도 첫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국가 간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전쟁을 택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문명화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와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살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인류의 문명화는 절반 정도만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연설]

전 세계 비핵화 원칙 추구해야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라는 권위 있는 모임에 연설자로 초대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최 측과 동료 연사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뉴질랜드 원주민 언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 아하 테 메아 누이 오 테 아오, 헤 탕가타 헤 탕가타 헤 탕가타." 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다. 그것은 사람이다. 그것은 사람이다"란 말입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속담을 소개한 이유는 논의의 초점을 부각시키고 이 자리가 최신 기술이나 외계의 장엄하고 신비로운 현상을 논하기 위한 곳이 아님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평화와 안보가 보장된 삶에 대한 염원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마오리족은 지난 수세기 동안 거의 1000년에 걸쳐 거대한 태평양을 건너 뉴질랜드에 도착했고, 폴리네시아인들은 대만 원주민의 먼 후손들입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이 나라와 국민들의 역동성에 감동합니다. 하지만 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72년간 분단된 이 나라의 고통스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부모로부터 나라의 분단이 일으키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분단의 원인은 식민지화와 종교였고, 한국의 경우는 세계정치를 좌우하는 이념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서로 같은 것은 없고, 아일랜드와 한반도의 역사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8선 이북의 한국인들도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은 개방되고 번영된 사회를 원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의 정책을 규탄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기존의 규탄 목소리에 당연히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회의의 주제인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에 따라 과거 여러 번 논의된 문제를 되풀이하기보다 대안과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는 1998년 아일랜드에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성금요일 협정'과 같은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경색된 교착상태를 벗



어나 전진하는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협상이야말로 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한반도 문제의 관련 당사자들 모두 평화적 협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 결국 한반도 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1945년 유엔이 설정한 목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1921년 아일랜드의 분단에서 1998년 협정까지 77년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좀 더 폭넓은 비핵화의 맥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독일과 함께 유엔 5개 상임이사국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란 핵무기 폐기협정이 나타내듯이, 또 다른 접근 방법의 하나인 협상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루어낸 진전과 비슷한 결과를 북한과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핵무기 반대 입장을 취해왔고, 이는 전통 우방들과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기에 축적해온 핵무기의 감축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핵무기 반대 역사를 고려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이 더 빠르게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자의 핵무기 성능과 추진 장치를 향상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성능 개발 비용은 미국의 경우 1조 달러를 넘고, 러시아도 비슷한 규모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핵무기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세계는 핵 위협에 놓여 있고, 경우에 따라 단 한 사람이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 발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이 냉엄한 사실을 고찰해야 합니다.

제주포럼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75억 인구는 핵무기 보유국들이 협력하여 핵무기를 남김없이 제거하는 계획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아닌 협력은 일촉즉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을 막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단순하고 실용적인 이유에서도, 무기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은 비용이 매우 적게 듭니다.

경제협력은 균형 잡힌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잘 나타납니다. 대한민국과 아시아가 이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아시아 경제권을 세계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이러한 진전을 환영합니다. 뉴질랜드도 수많은 협정을 체결했고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최초의 선진국입니다.

아시아와 세계의 협력은 세계의 번영을 이끌고,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평화와 안보가 보장된 세계에 대한 바람을 말해왔지만 우리 모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기업 활동의 조정을 위해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과 기업 활동이 국가에 대한 책무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파나마 페이퍼는 각국 정부에 대기업과 부유층의 탈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 세법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에, 각국은 세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세법이 정직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하는 데도 국가 간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불공평한 경제정책에 지쳐 있다는 점은 영국의 제레미 코빈이나 미국의 버니 샌더스와 같은 비주류 정치인들이 가진 호소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정책으로 소수가 대다수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는 매우 역동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동성조차도 금융위기 충격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창의성은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지만 그것도 한 국가의 사회구조와 법률이 그러한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가능해집니다. 용기 있는 지도력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야만 합니다.

소수의 세력은 공포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세계 공동체 내 다양성과 신념의 차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를 괴롭히는 인종·종교 간 분쟁이 일으키는 공포는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는 난민 대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20세기 중반 서구문명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인종적 편견과 유사한 사태에 또다시 직면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비극입니다. 인종주의적 시각이 21세기의 세계에도 떠돌고 있고, 몇몇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세계는 이러한 사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소수의 난민만을 받아들이는 현실로 인해 비극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종 간 갈등은 그것이 종교 때문이든 아니든 공동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쳐놓았습니다. 또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방치될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수백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회의는 전 세계의 국가들을 불러모아 긴급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범위 이내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할까요? 섭씨 2도의 상승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해안지역의 침수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온도 상승이 2도를 초과한다면 그 결과는 궤멸적일 것입니다.

이는 인구 대량 이주를 의미하며, 오늘날 난민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수많은 인구를 이주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탄소배출 저감 조치를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디젤 자동차 구매를 불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네덜란드나 가격경쟁력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한 노르웨이처럼 몇몇 나라들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또한 전기자동차 수요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다른 조치로 중국과 몇몇 나라들처럼 오염이 심한 석탄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태양열에 투자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요점은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지금 요구됩니다. 미래의 어느 날로 미뤄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역사에서 많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아시아는 이제 탄소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앞장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중차대한 도전 과제를 살펴보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계는 지식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 보기 드문 가능성의 문턱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인종, 피부색,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개인을 고유한 존재로 인정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인식도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한다면,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기조연설]

역사의 구속 넘는 개방적 리더십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

제11회 제주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작은 나라인 싱가포르의 시각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와 이 비전을 달성하는 데 협력적 리더십이 갖는 역할을 얘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태평양의 세기'라 이르는 21세기의 2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40%, 세계 생산성 증가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세계경제 변화와 기술 발전에 적응할 수 있다면, 2050년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하게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세계 절대빈곤 계층에 속하는 아시아 인구는 1981년 16억에서 오늘날 7억으로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역사적 유산에 뿌리를 둔 난제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질곡에서 탈피하기 위해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라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이 공동선을 위해 복잡한 난제를 함께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지닌 현명하고, 굳건하고, 선견지명을 가진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적 리더십이란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많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마다 발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30년 전쟁 후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오늘날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의 기반이 되는 통치권과 영토 보전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분열과 불안정한 상태 속에 격동의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탈식민지화는 아시아에서 많은 신생 독립국을 출현시켰습니다. 공산주의자 반란은 동남아시아를 갈라놓았고 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대립의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는 휴전 체제하에서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힘든 시기였지만 각국 정부는 차이를 극복하고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은 아시아가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 기적과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란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가 등장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고, 10년 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발전과 번영을 지도적 원칙으로 삼았고 일부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유산에서 기인하는 상호 간 신뢰 부족에도 불구하고 상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왔습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술발전과 용이한 통신수단으로 빠른 변화를 보이는 국제 흐름은 사회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유례 없는 혼란을 초래해왔습니다. 지도자와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에 대한 반응으로, 때로는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여러 문제를 표면화하거나 문제 해결의 시간만을 벌고자 하는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은 미래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의 유산마저 처리해야 하는 짐을 지우게 됩니다. 아시아인들은 평화와 안정을 원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인생에서 더 높은 성취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은 단순히 제로섬 논리로 국가 이익만을 수호하기보다는, 비전과 정치적 용기를 갖고 이들의 보편적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 내 기반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그만 섬 제주도조차 싱가포르 전체 면적의 2.6배 크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물과 식량안보는 국가 지도자들을 밤낮없이 긴장하게 만드는 일상의 관심사입니다. 조그만 도시국가로서 우리는 선택지가 거의 없고 실수를 용납할 만한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제도와 호의적 외부 환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갈라설 수 없는 처지입니다.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고조된 테러의 위협은 싱가포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후 능동적 외교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우리는 지역 내 협력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유엔 내 작은 나라 포럼을 창설했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출범을 주도했습니다. 이 모든 포럼과 국제기구는 회원국들 간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967년 아세안 출범은 국가들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자 기구의 좋은 예입니다. 과거의 적대국들이 협력적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세안은 싱가포르 외교정책의 주춧돌입니다. 10개 회원국은 영토나 인구의 크기, 경제사회구조, 통치체제가 서로 다르지만 빈곤 퇴치, 발전 격차 해소, 국민 복지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아세안 조각그림 퍼즐'처럼 제각기 다른 회원국들을 결합시킵니다. 2015년 12월 우리는 2조6000억 달러 규모이자 6억2000만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2025년 청사진은 국가 간 연계를 증진하고,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아세안을 창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회원국

들이 과거의 수렁에서 탈피하기로 결심함으로써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아세안은 또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기구를 통해 주요 강대국을 이 지역에 참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의 하나는 한중일 3국 협력으로, 이는 1999년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회의에 부수된 한국, 중국, 일본 지도자들 간 역사적 조찬 모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중일 협력 구조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첫 단계였습니다. 2008년 이후로 이들 3국은 아세안+3 회의와 별도로 모임을 가졌고,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3자 간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퍼즐이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관련 당사국들에게도 들어맞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크기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모두 주변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만이 갖는 독특한 지정학적 과제(적대적 북한 정권, 중국의 전략적·경제적 비중 증대 그리고 한일 관계에 미치는 역사적 앙금)가 한국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나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긴장관계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안보 우산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로지 그것에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현재와 미래 한국 지도자들이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역사는 집단지성과 개방적 리더십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선 세대의 지도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역사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너무 과감한 조치를 한다거나 자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올바른 행위였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감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최근의 예는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양국은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신뢰와 화해를 구축하려는 훌륭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협력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에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하고, 자국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국가 지도자만 있고 국가 간 협력적 리더십이 약화된다면 이는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태평양의 세기'와 평화롭고 번영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팔을 벌리고, 역사의 구속을 넘어서 미래 세대가 조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아 지역이 이러한 비전을 함께 구현하는 것이 싱가포르가 희망하는 바입니다.

[기조연설]

유럽 시각에서 본 협력적 리더십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

귀빈 여러분과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등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개인, 사회, 국가 간 대화와 건설적 교류에 이바지해온 권위자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인이자 유럽인으로서 나의 관점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게 된 것 또한 영예라 생각합니다. 나의 관점이란 유럽연합의 성장과 통합 과정, 즉 지난 1000년간 동족상잔과 파괴의 시기 이후 수십 년간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가져온 과정을 지켜보고 경험한 관점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의 협력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유럽을 뒤흔든 세 가지 중대 위기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이란 바로 금융경제 위기, 난민 위기, 그리고 이슬람국가(ISIS, 이하 IS)를 배경으로 한 테러 위기입니다.

이 세 가지 위기가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른바 '아시아의 세기'에 거는 기대와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해 두고자 합니다. 나의 시각과 여러분의 시각 사이에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지리적 거리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유럽 문명과 아시아 문명은 모두 1000년간 진화의 산물이자 고귀한 철학적, 문화적 전통의 산물이며, 두 문명에는 국가 간 평화와 대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합니다. 이 목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문제의 지속가능한 공동관리 방안을 구하기 위해 끈기 있게 추구해온 목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목표 자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사람들 간 불평등을 줄이는 것으로, 이는 이 포럼의 주최국이자 세계적 기술혁명의 선두에 있는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암흑 시대' 3대 위기: 유럽연합은 왜 협력적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가

이제 지난 10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어두운 시기에 유럽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



펴봅시다.

첫째, 심각한 경제 위기가 무엇보다 국가부채를 가져왔고, 다음에는 유로화와 기업, 고용환경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 위기는 사회를 심각하게 뒤흔들어 놓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의 창출과 사회보장 모델을 파괴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는 이러한 광풍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권위있는 대응책이 나온 것은 2012년입니다. 그해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을 기점으로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왔고 유럽의 경제 회복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컨대, 협력적 리더십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초국가기관이자 가장 실질적 권한을 지닌 유럽중앙은행만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난민 위기입니다. 매일, 일 년 중 몇 달간은 매시간, 여성과 아이들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리비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전쟁과 기아로부터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변방지역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불어닥친 멈출 수 없는,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유럽 전체는 단일한 지도력 부재로 지금까지도 무력함만을 노출하거나, 이민 행렬에 대하여 형식적인 타협의 자세만 보여왔습니다.

유럽연합 국가 간 상호연대 요구는 최소한에 그쳤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대적 긴급사태에 대처하기보다 확신에 찬 민족주의나, 기회주의적 민족주의에 굴복하여 장벽을 세우려는 유혹은 강해졌습니다. 강압적 지도력은 이 경우 효용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비극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IS와 벌인 전쟁으로 촉발된 테러 위기입니다. 이는 폭탄 공격으로 폐허가 된 파리 바타클랑 극장에서의 살육 행위로 상징됩니다. 주로 유럽 태생 젊은이들이 또 다른 유럽 젊은이들에게 희생되었습니다.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의 살인이라는 행위를 통한 강렬한 메시지는 유럽의 사회통합 상태가 매우 취약하고 개혁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유럽의 국가 지도자들은 안보, 정보, 외교 문제와 유럽연합 자체의 정체성 재조정 문제에 대한 책임 공유과 의사 결정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각국이 주권을 양보하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연합은 '공동의' 장기 비전을 찾지 못하고 무너져내릴 것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브렉시트)는 이러한 심각한 퇴보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응 방안: 다자주의와 참여와 교육

국제관계가 중심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공동의 책임 의식, 토론과 교류의 장, 그리고 가능한 한 폭넓은 다자 간 의사 결정의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 결과가 있었던 초기 상태로 회귀해야 하는 G20의 현실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국제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의 중심 역할을 주목해보십시오. 최근의 다자 간, 양자 간 무역협정을 생각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인간에 의한 파괴행위(자연재해 이전의)로부터 자연보호 문제에 대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만들어진 파리 기후변화회의의 훌륭한 성과를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모범 사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율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서만, 영향력을 지닌 규율이 극단적으로 파편화되어 국제적 무질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참여의 확대로 이해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국가 간 관계에도 적용되고, 사회 내부 문제에도 확실히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혁명을 불러온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지금 모든 대륙의 지도자들에게 공동체의 원리에 부합한 권위와 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를 두려워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아이디어의 전파, 경험의 공유 그리고 참여의 요구가 지닌 엄청난 힘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변화를 진정한 기회로 인식하는 이들은 개방이 지닌 국가 발전 가능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후자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 창설국의 하나인 이탈리아의 전임 총리로서 여기서 '유럽의 희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장벽과 다양한 난점에도 진정으로 공유되는 통일적 비전만이 구대륙 국가들을 과거로부터 구원하고, 심지어 아시아의 역사와 운명에 수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과거의 분열과 갈등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이는 현재 파리 시앙스포 국제관계대학 학장으로서 내가 전 세계 대학, 대학원과 매일 협력하는 위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은 지배층이 형성되고 지도력이 길러지는 장소입니다. 이 중 최고 기관은 협동의 정신, 타인의 생각에 대한 이해와 개방과 변화의 자세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교육, 교육, 또 교육입니다. 나는 최근 전 세계 각국에서 온 2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한 모의 유엔총회에서 이 점을 재확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논의하면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주로 문화와 학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향상의 원칙은 앞서 언급한 유럽과 아시아 문명의 공통된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중 가장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협력적 리더십을 향한 핵심 과제는 그 무엇보다 교육일 것입니다.